"南北이 함께 이용하는 현금지급기 되길"

김 지사, 공동경비구역 현금지급기 설치 준공식 참석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9월7일 파주시 공동경비구역 남측지역에서 열린 '농협 현금지급기(CD) 설치 준공식' 에 참석해 금융서비스 개통을 축하했다.

분단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융서비스가 시작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9월7일 파주시 공동경비구역 남측지역에서 열린 '농협 현금지급기(CD) 설치 준공식' 에 참석해 정용근 농협은행장, 윤종일 경기농협지역본부장, 유화선 파주시장, 이성호 1사단장, 지역주민 50여명과 금융서비스 개통을 축하했다.

현금지급기 설치에 따라 금융업무를 위해 파주시 문산읍까지 나가야 했던 대성동 마을 50가구 주민(230여명)과 공동경비구역 주둔 장병(670여명)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 연간 15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들도 현금지급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현금지급기에 영어·중국어 안내 시스템도 넣을 계획이다. 공동경비구역에는 기념품점, PX 등 현금을 받는 시설이 있다.

김 지사는 "지역농민뿐 아니라 국방을 위해 노력하는 장병과 앞으로 통일이 이뤄져 북한 사람들까지 함께 이용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을 꼽으라면 JSA, 판문점일 것이다. 이는 인류역사에서 유례가 없으면서도 가장 아픈 역사다. 모든 세계인들에게 귀한 교훈과 역사가 되는 곳에서 꼭 필요한 현금까지 쉽게 만날 수 있어 더욱 기쁘고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9년 착공, 2011년 개청 목표로

경기교육청 제2청사 신축 위한 협약 체결식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4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제1회의실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입지를 위한 유치 후보지 신청을 받아 후보지 심의위원회의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의정부시에서 제안한 금오동 431-1번지 일원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세이욘 부지중 50,000㎡가 교육청 제2청사 부지로 확정된데 대하여 원활한 교육청 제2청사 이전 신축을 위하여 상호간에 협조할 사항에 대한 확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서 내용에는 의정부시에서는 부지 매입에 협조할 것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각종 인.허가 협의 지원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임시로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를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세이욘 부지로 이전하면 지난 수십년간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지역을 시에서 추진중인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편익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제2청사를 연면적 9917㎡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2009년 건축공사 착공하여 2011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4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제1회의실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전국무용제 '춤으로 하나되어'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전국 시도대표 15개 무용단 참가

전국 각지의 수준 높은 무용단들이 의정부를 찾는다. 제16회 전국무용제가 9월11일부터 20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춤으로 하나되어'라는 슬로건으로 의정부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1992년 춤의 해를 기점으로 무용인들의 열정과 관심 속에 전국무용제 시작 이후 경기도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경기도 무용예술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한국무용협회 공동주체로 각 시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한 15개 시도 대표 무용단의 불꽃 튀는 무용경연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의정부 이미숙무용단을 비롯해 한국무용 4팀과 현대무용 9팀, 발레 2팀 등 총15개 무용단은 준비된 공연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15팀 공연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게 되며, 단체상은 대상 대통령상, 금상 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장관상, 은상 경기도지사상·한국문화예술위원장상·의정부시장상, 동상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및 경기도지회장상을 수여하게 된다.

이번 무용제는 11일 세미나를 시작으로 12일에는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의정부 이미숙무용단이 맨 먼저 공연을 시작해 19일까지 1일 2개 시도대표 무용단의 화려한 경연이 펼쳐지게 된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시군의 날을 지정해 경기도내 시군 무용단의 축하공연도 이루어진다.

11일 오후6시 경기도립예술단의 리듬앙상블 공연을 기점으로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전자바이올린 연주, 락 페스티벌, 비보이 공연, 수퍼버블매직, 재즈 및 벨리댄스 페스티벌 등 총40여 개의 다채로운 음악공연이 야외특설무대 및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질 계획으로 있어 늦여름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음악이 흐르는 무용경연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6회 전국무용제가 9월11일부터 20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세 번째 녹색허파 탄생 기대

청계산·명성산 도립공원으로 지정 가능성 높아

경기도는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이 수려하고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압력으로부터 보호와 아울러 도민들에 다양한 숲 체험 기회 및 휴식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도립공원을 확대 지정·조성하기로 했다.

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그동안 경기넷, 시·군 홈페이지, NGO단체, 도내 대학 등으로 부터 후보지 20개소를 추천 받아 후보지 기초자료 검토, 시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포·안양시에 소재한 수리산(547ha), 동두천시의 소요산(340ha), 포천시의 명성산(2,470ha)·청계산(1,975ha), 남양주시의 철마산(885ha) 등 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경기도 도립공원 지정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했다.

도립공원 후보지 5개소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후보지 중 2개소에 대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학계, 전문가, 환경 NGO와 해당 시군 관계관 등이 참여한 도립공원 지정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9월7일 개최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송영배 환경생태연구소장의 도립공원 후보지 5개소에 대한 평가는 자연·인문·생태관광 환경, 관련법 및 제도, 수요추정 및 주민의식, 잠재요소 및 제약요소, 지역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별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후보지별 우선순위 살펴보면 자연보전과 이용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수리산이 1위로 평가됐다.

생태적 보존가치가 우수하고, 경관이 수려한 청계산이 2위, 산정호수·억새군락지 등의 높은 지명도와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이 대부분인 명성산이 3위, 전철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화려한 단풍·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소요산이 4위, 대부분 국·공유지로 이루어진 철마산이 5위로 평가되었다.

최종보고회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립공원 지정 적격지를 최종 선정하고, 최적격지 수리산에 대하여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공원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등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생태계 조사, 기본계획수립 등의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나머지 1개소에 대하여는 청계산·명성산을 대상으로 도립공원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2008년도에 도립공원 지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 연인산 도립공원 등 2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연인산 도립공원은 2009년말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도내 군립공원은 남양주시의 천마산과 가평군의 명지산 등 2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바자회 수익금 560만원 전액 기탁

가성교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전달

의정부시 녹양동에 소재한 가성교회(담임목사 윤두태)는 9월3일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녹양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소재한 가성교회(담임목사 윤두태)는 9월3일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녹양동주민센터에 기탁해 지역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가성교회는 지난 6월2일 기증 받은 각종 생활용품을 가지고 녹양동 어려운 이웃돕기 바자회를 실시했다.

이날 바자회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이웃도 돕고 생활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주민들이 바자회장을 찾았다.

이날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560여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며, 수익금 전액을 녹양동주민센터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 28가정에게 후원금 20만원과 쌀을 전달했다.

가성교회 윤두태 목사는 1983년 8월에 녹양동에 교회를 열어 현재까지 많은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10년 전부터는 매년 6월초에 어려운 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으로 후원활동을 하고 있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 후원금을 전달받은 장모(중증장애인, 63세)씨는 곧 닥쳐올 추운 날씨에 보일러 기름이 없어 걱정했는데 가성교회의 후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매우 고마워 했다.

이병우 녹양동장은 앞으로도 종교 및 사회단체들의 사랑나눔 행사를 적극 유도 및 지원하고 미담사례를 적극 벌굴하여 녹양동 지역이 사랑나눔의 공간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中國 단동시에서 전통춤의 향연 公演

이미숙무용단, 제1회 韓國주간기념 공연에 나서

1992년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두고 창단한 이미숙무용단(단장 이미숙)이 오는 9월20일과 22일 중국 단동시 제1회 한국주간기념 전통춤의 향연 무대를 선보인다.

중국 단동시 인민문화궁과 금강산 공원에서 실시할 이번 공연은 이미숙무용단이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의정부시, 중국 단동시가 후원한다.

이번 무대에서 이미숙무용단은 태평무와 화관무를 합설하여 만든 화평지무, 한량무, 태평산조, 무고와 아박, 경고와 검무, 애가, 청청수월래, 훈령무, 동방의 색 한국의 음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동방의 색, 한국의 음'이라는 작품은 타악기와 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작품 전개는 북과 장고음의 어우러짐으로 시작해 바라춤과 조화를 이루면서 화려한 타악춤으로 이어지는 춤이다.

이번 공연에 나서는 이미숙 단장은 "단동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국주간 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 춤사위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다"며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에서의 공연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우리춤 작품을 통해 유감 없이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한 2007년도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무용단은 오는 9월20일과 22일 중국 단동시 제1회 한국주간기념 전통춤의 향연 무대를 선보인다.

제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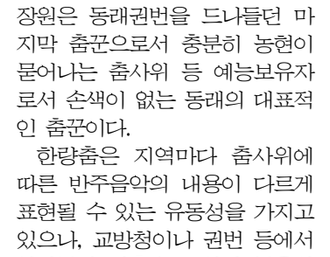
제8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행사가 7일 오전10시 시청 강당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개회선언에 이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27명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경기도제2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족구와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간의 화합과 단합을 다지기 위해 레크레이션을 가졌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와 야외나들이, 문화체험, 무의탁 독거노인 후원자 연계서비스에 앞장선 의정부시 노인복지연계센터의 강혜련(여, 31세)씨를 비롯한 8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8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행사가 7일 오전 10시 시청 강당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아이들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지킴이

의정부시 가능1동 주민자율교통봉사대는 개학을 맞아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아침 횡단보도 등에서 활동을 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 가능1동 주민자율교통봉사대는 개학을 맞아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아침 횡단보도 등에서 활동을 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가능프라자 부근에 살고있는 김모(여, 36세)씨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 불안해 아침마다 등교시키고 출근을 했는데 이른 아침에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자율교통봉사대원들의 활동으로 마음 편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⑮ 동래한량춤 (東萊閑良춤)

덧배기, 배김사위를 바탕으로 한 춤사위

동래한량춤은 큰 의미로는 동래 덧배기춤의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동래야류의 양반춤, 굿거리춤, 입춤 및 동래학춤의 선행 예능으로 동래 지역 모든 남성무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민속춤이라 할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

동래한량춤은 2005년12월27일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동래한량춤은 동래의 지역색이 강하고, 독특한 춤가락이 가미된 남성춤이다. 이 춤은 예로부터 동래 지역 한량들이 추었던 춤으로서 전체적인 춤사위는 이 지역에서 전래되는 덧배기, 배김사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정하게 정해진 춤의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량들이 놀이판을 벌일 때 흥이 고조되면 즉흥적으로 추는 개인적인 춤인 허튼춤(입춤)을 중심으로 한, 호방하고 선이 굵은 흩 춤인 남성무로서의 여유와 함께 마당춤과 기방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래 동래 지역의 관속들이나 기방을 출입하는 한량들이 췄던 춤인 만큼 천박하지 않고 기품이 있으며, 동시에 즉흥적이며 개인적인 춤사위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 높은 춤이다. 또한 기방이라는 협소한 장소에서 자기 나름의 멋을 부리며 추는 입춤이므로 개인의 창조력과 함께 동작이 섬세하고 한량기가 있는 춤이다.

동래한량춤 예능보유자인 문장원은 동래권번을 드나들던 마지막 춤꾼으로서 충분히 농현이 묻어나는 춤사위 등 예능보유자로서 손색이 없는 동래의 대표적인 춤꾼이다.

한량춤은 지역마다 춤사위에 따른 반주음악의 내용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방청이나 권번 등에서 한량들이 여흥으로 췄던 무용의 역사성을 감안하면 대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나위 가락으로 일관하는 것을 알 수 있다.